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Annual Report 2014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3)



Center for BAM
Management Team 작성
작성일자: 2015년 4월 21일
TCFbam@gmail.com

TABLE OF CONTENTS

- 1 공동대표 메모
- 2 2014 년 CBAM 사역 정리
- 3 2015 년 CBAM 우선 순위
- 4 2014년 결산
- 5 2015년 예산

1

공동대표 메모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BAM 운동은 선교지에 기업을 세우는 전통적인 이해를 넘어섭니다. 저희 CBAM의 비전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소서” (이사야 61:3) 입니다.

“BUSINESS” 비즈니스는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살고있는 글로벌 문화이며 라이프스타일이며 선교적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해하는 “MISSION” 선교는 교회나 선교사들이 진행하는 선교 프로젝트 이상을 의미합니다. 선교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며, 아들 예수님의 세상으로의 성육신적 사랑의 실천이며, 지금 현재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자유로운 표현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바로 지금 일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함께 “AS” 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안에 거하시며 피조물을 향하는 풍성하신 그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의 개인적, 공동체적 라이프스타일 자체 AS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나라의 증거가 되며 우리의 선교적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선교는 이 땅이 문화 가운데 완전히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파루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새로워지며, 그 소망의 신비를 베푸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저희 CBAM의 비전은, 비즈니스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CBAM은 2010년 하반기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조직구조의 틀에 의지하기 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기적인 협동의 형태로 지난 5년 동안 사역을 확장해왔습니다. 사실상 CBAM에 구조적인 틀을 갖게 된 것은 2014년 8월 워싱턴 디씨 CBAM 수련회 때부터이며 아직도 구조적 틀을 갖춰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대표 메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의 전체 흐름에 대한 저희들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첫째, 문화적 차이를 묶고있던 지역적 경계가 희미해짐에 따라서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주역은 이제 더이상 소수의 선교사들이 아니며 일반 평신도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화 전세계적 확장과 다문화의 공존과 다원주의의 만연은 복음의 확산에 있어서 삶에서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 깊이 자리잡은 복음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지지되지 않는 선교는 이제 더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셋째,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적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던 교회의 흐름은, 세상 속으로 성도들을 파송하며 그들이 선교적 삶을 세상 속에서 살도록 돕는 흐름으로 움직여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회적 표현이 가능해야하며 필요합니다.

저희 CBAM 의 비전은, 비즈니스화 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며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 비전은 전체 선교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한해를 돌아볼때, CBAM 은 이 비전에 충실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2015년에도 이 흐름은 계속 되어져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2014년에 시작된 CBAM 자체의 조직구조정비를 탄탄하게 하는데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희의 비전에 공감하며 함께 동역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15년 4월 19일 공동대표
서명구
조샘

2014년 사역 정리

본 섹션에서는 CBAM의 지난 1년을 사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2015년의 각 사역별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8월 버지니아주 에스라 기도원에서 모인 CBAM 수련회는 저희 CBAM 이 본격적으로 이사회를 갖추고 각 사역팀을 공식적으로 구성한 첫번째 모임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CBAM 은 이제 조직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사역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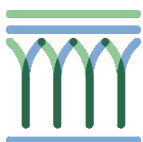
Joshua Business School 여호수아 비즈니스 스쿨

JBS 는 일상 속에서의 선교적 삶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 학교는, 비즈니스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나라의 소식을 총체적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가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수강생들은 소그룹으로만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JBS 는 온라인 학교로 전환하였습니다.

JBS 는 2014년 동안 온라인 교육으로 방향을 한 사이클을 마치는 큰 변화를 가졌습니다. JBS 온라인 1.0 버전에는 5개국 8개 도시에서 약 15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이 사람들이 끝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제 2기 학생들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10여개국 23개 도시에서 약 160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 6월에는 이디오피아 물루앙겔 교단(순복음교단)의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JBS 오프라인 학교를 이디오피아 미잔테파리에서 4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급속히 도시화되어가며 비즈니스 문화로 변해가는 제3세계의 교회들 가운데 BAM 의 관점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교회를 섬기기 위한 영어 JBS 교육자료 개발이 요구됩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JBS 2.0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 기업, 교회들의 다양한 리더들과 실무자 90여명으로부터 리뷰를 받는 작업을 하였고, 2015년 4월 JBS팀을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서 모여서 이 리뷰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저희는 2015년의 JBS 사역 방향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JBS 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BAM 운동을 삶의 라이프스타일로 시작하는 기초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JBS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 BAM 이 단순히 선교지 기업 창업을 넘어서서, 성도들의 선교적 삶을 가르치는 운동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JBS 에서 배우게 된 선교적 라이프스타일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JBS 를 마친 뒤에도 계속된 follow-up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계속된 소그룹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동시에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웹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JBS
JOSHUA
BUSINESS
SCHOOL

JBS 는 비즈니스 세계 속의 선교적 삶을 가르치는 학교로 약 20주 동안 4-5명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진행됩니다. 위의 사진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의지를 다짐하는 한 소그룹의 신발벗기 의식입니다.



2014년 사역 정리

Christian Resource Network 크리스천 자원 네트워크

CRN 은 선교지에 세운 BAM 기업과 후방에 있는 창업 자원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2014년은 처음으로 CRN 팀을 구성한 원년입니다. 강성범 형제가 팀장이 되어 구성된 CRN 팀은 2014년 한해 동안 장기 사역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첫번째 프로젝트는 태국의 D선교사님이 시작한 커피 로스팅 샵의 C.I. 를 만드는 작업이었으며, 두번째 프로젝트는 알바니아에서 시작된 양계 비즈니스의 C.I. 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비즈니스 모두 앞서 소개드린 JES 에서 공부했던 선교사들이 시작한 기업이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자원하여 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들어간 비용은 선교사 기업이 1/3, 자원봉사자가 1/3, CBAM 1/3을 제공함으로써 이뤄졌습니다.

2014년이 CRN 에 대한 프로세스와 팀을 구축하는 기간이었다면, 2015년은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CRN
CHRISTIAN
RESOURCE
NETWORK

이디오피아는 1억의 인구 가운데 약 70프로가 기독교인입니다. 위의 사진은 정글 속의 부족들을 섬기는 선교사들입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시골에 자리잡고있는 이디오피아 교회는 급격한 자본주의의 확산과 도시화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 가치를 도전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비즈니스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나라 백성을 살 것인가는 이제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이들의 질문입니다.



CBAM 에는 다양한 국가 다양한 배경의 자원봉사자들이 스태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얼마 전에 결혼한 최자연/조정현 부부. 자연 형제는 현재 캐나다 워터루 공대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고, 정현 자매는 IBM 에서 프로젝트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5년 CBAM 우선순위

저희 CBAM 스태프 14명은 2015년 2월 20-22일에 시카고 휘튼대학에서 모여 CBAM 사역 전반을 리뷰하고 이후의 전략적 방향을 의논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미팅과 후속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2015년 동안 CBAM 전체차원에서 발견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는 사역을 위해서 조직을 강화할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순위 1 CBAM 구조 강화

CBAM 은 그동안 유기적인 협동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역의 규모가 커져서, 보다 탄탄한 조직구조를 가져야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계약형태로 바꿀 필요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협력이 참여하는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호존중적인 협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개인들이 자원봉사자 이상으로 일하는 것을 막고, 또 그럴 경우 사전의 합의와 정당한 재정적 보수를 받는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이제는 급여를 받고서 일하는 스태프가 필요함을 봅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을 2015년 말까지 모으고 2016년부터는 급여를 받는 스태프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CBAM 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자원봉사주의” 는 최대한 지켜나가며 최소한의 경비구조를 유지하는 기본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각 사역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사역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공급하고, 또, 온라인을 넘어서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교제함으로 팀워크를 다지려고 합니다. 또, 현재의 이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지배구조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2015년 CBAM 우선순위

우선순위 2

CBAM 펀드레이징

저희들의 살림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언급한 급여 스태프의 고용을 생각할 때 현재보다 재정후원자들을 늘려야 합니다. 2015년 하반기는 재정후원을 늘리기 위한 홍보와 의사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2015년의 지출 예산은 2014년에 비해서 \$24,485 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 지출의 증가를 채우기 위해서 연말까지 \$19,785 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JES 나 JBS 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때 그 때 필요를 알려서 후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기적인 후원금액으로 \$19,785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파트타임으로도 고용하는 스태프를 둘 예정이어서 2015년 하반기의 펀드레이징은 더욱 늘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목표로는 2015년 말까지 약정한 정기 후원금액을 \$30,000 까지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3

CBAM웹 개정 및 전략적 홍보 준비

그동안의 홍보는 관계를 통해서 이뤄졌고 소극적이었으나, 하반기부터는 JBS 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 홍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CI 를 개발, 활용하고, 동시에 다양한 채널 개발과 홍보 자료를 개발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이 CBAM 의 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홍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BAM 운동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을 섬기며 연결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4

BAM운동 follow-up 및 협력강화를 위한 기초 놓기

그동안 JBS 와 JES를 통해서 나오게 된 졸업생들의 숫자가 300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What’s next?” 입니다. 저희 CBAM 은 교육기관으로 졸업생들을 조직화하는 일을 계획하지는 않지만, 지역교회나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후속 모임들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교회공동체로서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웹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BAM 기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졸업생들의 경우, 정기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4년 결산

수입/지출	사역	사역내용	금액 (\$)	합
수입	CBAM	수련회비	4,850. ⁰⁰	4,850. ⁰⁰
	JBS	학교등록비	5,567. ²⁸	5,567. ²⁸
	JES	현금	13,097. ³³	26,491. ³³
		JES 등록비	13,394. ⁰⁰	
	CRN	Projects 지불	240. ⁰⁰	
	총수입			
지출	CBAM	Manager 여행경비	1,376. ⁰³	
		CBAM 팀 경비	2,384. ⁸⁰	
		CBAM 수련회 경비	5,163. ⁴⁵	
		게스트스피커	902. ⁰⁰	10,515. ¹⁹
	JBS	이디오피아 강의	3,003. ³⁹	
		녹음프로젝트	300. ⁰⁰	3,303. ³⁹
	JES	JES숙박비	20,846. ⁰⁰	
		JES 운영비	4,005. ⁰⁰	24,851. ⁰⁰
	CRN	Projects	480. ⁰⁰	480. ⁰⁰
	총비용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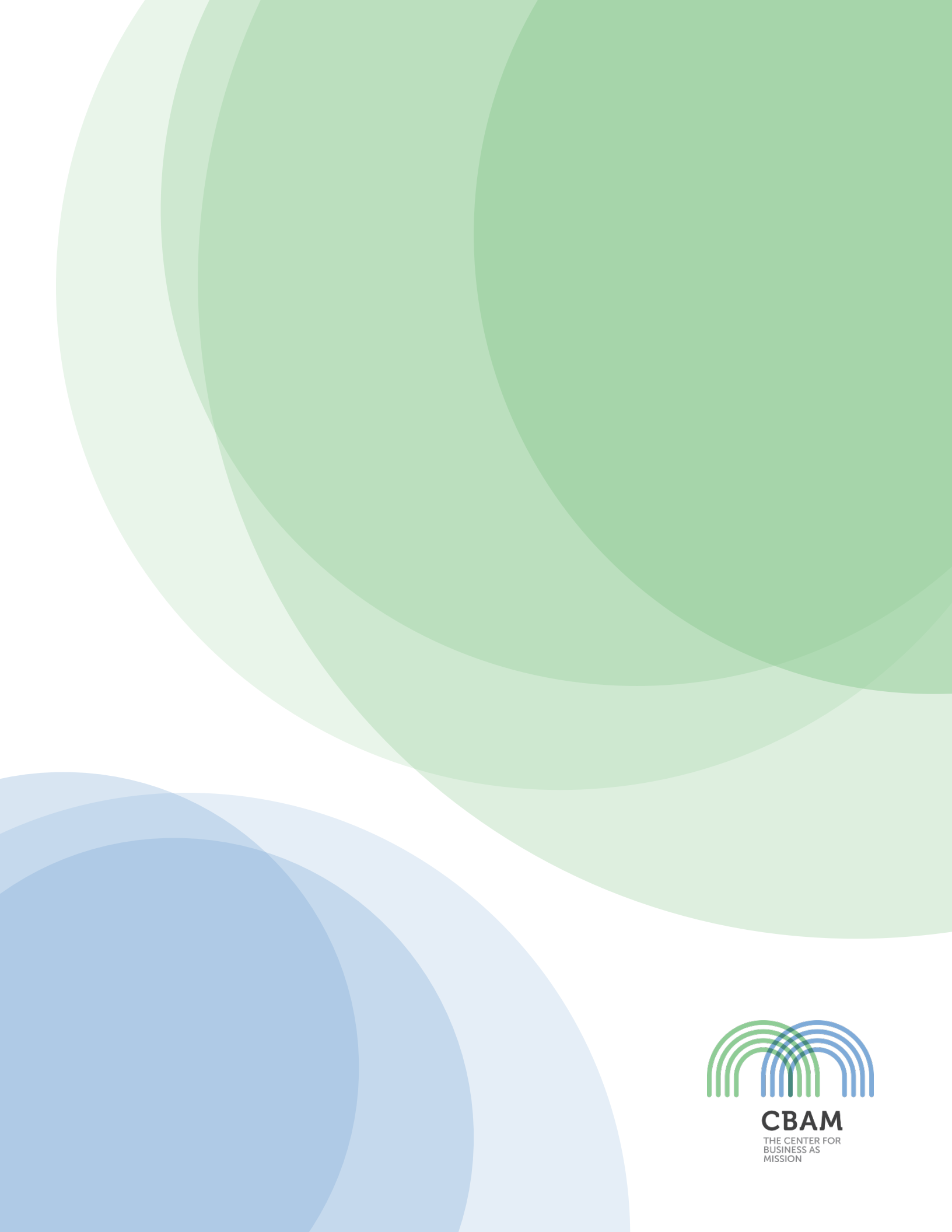
2014년 1월 1일 현금 잔고는 \$14,083.⁴⁹ 였으며,
 2014년 12월 31일의 잔고는 \$12,726.¹⁴였습니다.
 2015년 4월 21일 현재의 현금잔고는 \$10,733.⁰⁰ 입니다.

2015년 예산

수입/지출	사역	사역내용	금액 (\$)	합
예상수입	CBAM	정기후원자 (개인 및 단체)	19,785.00	20,242.50
		수련회등록	5,000.00	
	JBS	수강등록 (150명 예상)	9,000.00	9,000.00
	JES	수강등록 (60명 예상)	20,850.00	28,850.00
		프로젝트 현금	8,000.00	
	CRN	BAM 회사 지불	1,000.00	1,000.00
총 예상 수입			63,635.00	
예상지출	CBAM	Web 구축/ 홍보	5,000.00	15,000.00
		팀 미팅	2,000.00	
		수련회	6,000.00	
		CBAM Director경비	3,000.00	
		자원봉사자 급여	2,000.00	
	JBS	팀 미팅	2,000.00	2,000.00
	JES	JES-T국	33,850.00	34,850.00
		팀미팅	1,000.00	
	CRN	프로젝트 (4개)	2,000.00	3,000.00
		팀미팅	1,000.00	
	예비비	전체예산의 10%	5,785.00	5,785.00
총 예상 지출			63,635.00	

Note

CBAM 은 현재 사무실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 자원봉사자들로 스태프를 꾸리고 있기에 위의 저비용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후원금도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역의 프로젝트 현금 형태로 모아서 해결해왔습니다. 이제 저희 사역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15년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정기 후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약 \$20,000 의 재정이 최소한 필요하며, 2016년 부터 고용할 급여 스태프 (파트타임) 을 생각한다면 약 \$35,000 정도의 정기 후원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CBAM
THE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